리영춘 그림

3 - AUG - 9
Copy ______ 1960

활살

7 월호 1956년(6 8)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하여

박승히 그림

—내가 8만 명 중에서 이 마을로 오는 첫 사람인 줄 알았더니…… 동무는 언제 제대 됐나

—내야 정전되면서 바로 제대된걸 … 그러니 여기 로력 전선에서도 동무보다 고참인셈 일세

공화국 정부는 금번 8만 명의 병력 축소를 하여 평화적 건설을 위한 로력으로 돌림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시키는 또 하나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다

리 승만의 군비 증강

병력 증강은……

자멸의 길……

"3남의 노래는 변한다"

김 광현

I

먼 옛날—三남의 농민은 논에다 보리 농사를 하고나서도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새 영농법을 생각해 냈다.

그러나 그때의 량반 지주들은 보리를 천한 곡식으로 알고 보리밥 소리만 들어도 입을 찡그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논에다 심는 보리에 소작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참말로 천만 다행한 일이였다. 하기에 三남 농민들은 소작료를 안 바치고 땅의 〃옹군 혜택〃을 그대로 입는다 하여 〃옹혜야〃라는 노래를 만들어 三남의 마을마다에서 불렀던 것이다.

옹혜야 에헤에헤 옹혜야
밀보리털어 옹혜야
너도나도 옹혜야
금년보리 알알이도
잘익었다 옹혜야
옹혜야 에헤에헤 옹혜야

II

일제 시대—왜놈의 지주들은 〃옹혜야〃 라는 노래에 질색하여 이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기들이 강탈한 땅에선 논에 심는 보리에도 소작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니 三남 농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소작 쟁의를 일으켰다.

그러자 일제 총독 통치 기관은 이 三남 농민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보리에다 콩을 썩어서 메주덩이처럼 빚은 주먹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하기에 그때의 三남에선 다음 같은 노래가 왜놈들 몰래 불리여 졌다.

왜왔는고 왜왔는고
왜놈들이 왜왔는고
우리는 팔자험해
이런꼴을 보았고나

왜가두는고 왜가두는고
감옥에는 왜가두는고
호미들고 일하던손에
쇠사슬이 웬일인가

III

해방 후 三남에 기여든 미제 놈들은 리 승만 괴뢰도배를 사촉하여 『하곡 수집』이란 이름 밑에 (보리 한섬의 생산비가 6천 환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3천 환도 못되는 헐 값으로) 강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놈들은 이 강탈 정책에 항거하여 일어서는 三남 농민들을 〃빨갱이〃라는 이름 밑에 함부로 총을 쏘며 학살하였다.

그러므로 三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한에 가득찬 노래가 불리워지기 시작하였다.

날이가고 달이가도
밝은세상 아니오고
청천벼락도 분수가있지
우리아들 누가죽였나

부르고 또불러도
대답없는 우리아들
벗님네야 가잤구나
원쑤갚으러 가잤구나

오늘— 〃옹혜야〃 노래를 다시 찾지 못한 三남 농민에 대하여 리 승만 도배들은 금년 봄에도 비료 값을 2배 반으로 껑충 올려 놓고 한몫 보더니 최근에는 하곡 수탈에 달라 붙어 생산된 보리를 긁어 갔다. 그리하여 요지음 三남 농민들 사이에선 다시금 새로운 노래가 불리워 지고 있다.

어화농민들 말듣소
三남 농민들 말들어
인젠참말 못살겠네
미국놈들 몰아내고
리승만을 타도하고
조선인민 한데뭉쳐
평화통일 이룩하세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안창수 그림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광활한 전망을 바라보면서 3개년 계획을 4개월 단축하여 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자멸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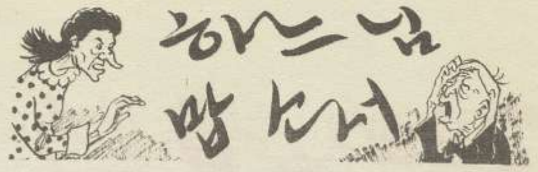
인민 재산 긁어 모아

북진 전쟁 서둘다가

얻을 것은 자멸일세

송용남 그림

미제와 리 승만은 전쟁 도발을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 하고 있으나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하여 계속 완강하고 인내성 있게 투쟁하는 조선 인민들의 강력한 력량 앞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하느님 맙소서

한 석기

불안과 초조와 고민에 싸인 리 승만은 『대통령』선거 후엔 더욱 불면증에 발작증까지 겸발하여 애리쓰의 고통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어느날 밤이였다。

『승만! 왜 또 일어났삽내까? 오늘 저녁 벌써 세 번째 아닙내까?』

『침대가 돌아가구 집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애 도무지 잘 수 없구려』

『승만! 나 당신 심정 잘 알 수 있삽내다。그러나 념려할 것 없삽내다。우리 뒤엔 미국이 있지 않습내까! 미국이! 마음이 불안할 땐 언제나 미국 생각해야 합내다』

『………』

『왜 대답이 없삽내까 승만! 벽에 걸린 저 약혼 사진 보시요。당신 저기 쓴 글 기억될 것입내다。나의 조국—미국에 대한 일편단심, 애리쓰의 사랑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으리, 얼마나 아름다운 글입내까! 또 약혼하던 때를 회상해 봅시다。

〃리 승만 박사! 미국 사람들은 모두 모두 한국 사람 야만이라 합내다。 나 당신하구 약혼 할 수 없삽내다〃 〃오 애리쓰! 내 심장 놀래우지 마시요。 나 미국 빵 먹구 자랐습니다。 미국 교육 받았습니다。 미국말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를 미국 위해 쓸모 있을거라구 소중히 키우고 있습니다。 나를 조선 사람으로 치지 마시오! 외모만 조선 사람이지 속은 미국 사람입니다 애리쓰……〃

『그때로부터 수 십년이 흘렀삽내다。그러나 이날 이때까지 당신 미국에 대한 충성 조금도 변치 않았삽내다。더우기 대통령 되여서 당신 한국을 미국 식민지로 만들고 한국의 아름다운 것 모주리 미국 위해 바쳤습내다。때문에 미국 당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내다 그런데 무슨 불안 있을 수 있겠삽내까』

『노 노 애리쓰! 미국이 버릴까 두려운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있는 백성놈들 어찌 할 재간 없단말입니다。나 불안 여기에 있습니다。북진 통일의 쌍 라팔 입이 부르트게 불어도 백성놈들 군비 축소, 평화 통일로만 다라나고 있으니 내 속이 어찌 편할리 있습니까?』

『승만! 우리 뒤에 미국 있는 이상 한국 백성 믿을 필요 없삽내다』

『미국?!』

『또 당신 손엔 수십 만의 군대 경찰이 있지 않삽내까?』

『미국이 못 당하는데 말도 마시요。 지난번 선거때만 해도 군대, 경찰, 헌병, 테로단, 어깨패 할 것 없이 총 발동 시켰서도 려 기붕은 가을 바람에 단풍잎 떨어지 듯 했구 나두 52%루 간신히 락선을 면했으니 하늘에 곡할 노릇 아닙니까』

『승만! 문제는 생각하기 탓입니다。 딴건 몰라도 당신 52%로 당선된 사실에 대해선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내다』

『영광?』

『그렇습내다 승만! 당신 미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 사람 남의 나라에 와서 52% 지지로 대통령 3선까지 됐으니 이것 실로 세계 력사에 없는 큰 영광 아니고 무엇이 겠습내까! 우리는 하느님께 수 천번 감사 드려야 합니다』

『헤 헤 헤 사랑하는 애리쓰! 참 그렇구려 당신 총명나 감탄 감탄 했습니다。 나 당신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인젠 나 좀 안심하구 잘 수 있습니다。』

『승만! 백성 놈들이야 어떻게 춤 추든지 불안해 말고 누워서 아름다운 꿈이나 꿉시다』

× × ×

쿵!

『아이쿠!』

『승만! 어떻거다 침대에서 떨어졌삽내까』

『아이구 허리야 아이구 가슴이야!』

『이거 어찌된 셈입내까? 승만!』

『애리쓰! 창 밖에 저것좀 보우。 백성놈들이 무쇠 같은 주먹을 쳐들고 군비를 축소 하라! 리 승만을 타도 하자! 평화 통일 달성하자! 고 떼를 지여 덤비드는 구려 저거 저것좀……』

『승만! 진정하시요。 진정하시요』

『침대 밑에서 저건 또 뭐야…김 성수,신 익희 한패가 되여 염마장과 올개미 내들고 〃대통령 자리 뺏은 놈 심판대에 올리겠다〃 구 빨리 저승으로 가자는구려…으 흐흐흐』

『승만! 환장했삽내까? 왜 이러십니까?!』

『………』

『승만! 승만! 아이구 하느님 맙소서』

미국 『원조』의 산물

미제는 리 승만에게 주는 허울 좋은 『원조』에 의하여 남조선 산업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반부 인민들을 극도의 빈궁 속에 몰아 넣고 있다

—이렇게 내가 먹어야만 너희들에게 그런 생활 도구가 돌아 간다

박승히 그림

버림 받은 녀인들

박 노을

『금년 여름에 들어서 더욱 로출증 환자와도 같은 녀성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숫제 어깨와 유방만을 겨우 가렸을 정도의 〃쪽기〃같은 부라우스를 입고 명동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심장은 토치카 심장이요。로출된 그 속살은 도란철의 피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반부 간행 〃신태양〃지에서)

이것은 서울 거리의 스냅을 말하는 어느 기자의 진술이다。

미국식 도덕, 미국식 생활 양식의 독소가 뻗칠대로 뻗쳐 범람하고 있는 남조선 땅의 광경이 이 글 한 토막에도 눈 앞에 선하게 겹히는 것 같다。

세기말적인 생활 광태의 총 본점을 이루고 있는 미국! 미국의 그 더러운 발톱이 남조선 땅에 뻗치고 있으니 남반부에서의 이상과 같은 추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에로, 그로, 데카단…… 상상도 할 수 없으리만치 타락된 생활… 이 구렁이에로 미군들은 남반부 녀성들을 몰아 넣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가득이나 이야기꺼리를 즐기고 있는 남반부 작가 문필가들의 좋은 재료들로 되고 있다。

머는 말고 잡지 한권만을 들고 여기에 수록된 몇 편의 소설(?) 또는 실화들을 들추어 보아도 족하리라。

◇ ◇

다방 〃혜지〃로 있는 명숙이와 고학생인 인식이—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명숙은 인식이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을 양으로 자기에게는 부모도 동생도 없고 단지 자기 혼자 벌어 먹는 몸이라고 말해 온다。그러나·서울서 멀지 않은 시골에는 그 녀성만을 믿고 있는 부모와 동생이 있는 것이였다。명숙은 그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였다。

그러나 다방에서의 적은 월급으로서는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명숙은 드디여 인식이를 버리고 먹고 입고도 좀 남을 수 있다는 매소부로 되고 만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인식은 그 소굴로 뛰여든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들의 사랑!

그러나 이 소설의 주인공 명숙이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나가자구 허시는군요? 내가 인식씨를 사랑허구 있으니까 나가서 사랑을 다시 계속하자는 말이시군요!』

『…………』

『오늘은 이젠 더 나가지 않겠어요。 오늘은 인식씨가 손님 노릇을 허세요』

잡지 신태양에 게재된 소설 〃헤여져야만〃의 한 장면은 이상과 같이 서술되여 있다。한 가정의 호구지책을 타개할 길이 없어 자기는 륜락의 매소부가 되여 사랑하는 애인더러 손님이 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가엾은 녀성 명숙이! 이런 서글픈 녀성의 처지가 남조선 땅에서 어찌 명숙이 하나 뿐이랴!

◇ ◇

남반부 녀성들의 서글픈 이야기는 돈이 없는 설음에서 오는 것 뿐만은 아니다。실화 한 토막을 찾아보자。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1가 33번지에 있는 강 창숙 양은 아버지는 여위였으나 어엿한 큰 집칸이나마 쓰고 살았다。

그러나 스물 두살 꽃 나이에 그는 왜 자살을 하였던가?

그의 집은 그의 아버지가 8·15 전 일본인에게서 산 집이였다。

그러나 하루는 기름이 번지르르한 한 중년 신사와 관재청에서 나왔다는 젊은 친구가 찾아와 집을 명도하라는 것이였다。

귀속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관재청에 등록을 안했다는 리유에서였다。관재청에서 정식으로 인수했다는 중년 신사—서울 산업 주식회사 취체역 강 경동은 매일같이 찾아왔다。

옥신각신 몇 달 싸움의 날이 지났다。그러나 며칠 잠잠했던가 싶더니 하루는 돌연 창숙 양이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그의 몸은 벌써 싸늘해 졌던 것이다。

『사랑하는 동생들아! 무능한 이 언니를 용서해라, 살아 보려고 바둥거렸다는 언니였음을 알아다고, 모든 것을 용서해라, 강 경동이가 『비밀의 처』가 되여 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기에 속고 말았으나 야수 같은 인간은 들어 주지 않았기에 나는 간다……』

미국의 등을 믿고 권세 있다는 인간들이 야수 같이 횡행하는 남반부 천지, 소위 이 권세 있는 작자들은 색마로 화했는가, 남반부 녀성들을 더 없는 불행의 구렁이로 휩쓸어 넣고 있다。

살아 보려고 발버둥 치며 『비밀의 처』가 되여 몸까지 버리야만 하는 남반부 녀인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남 녀 평등권이 찾아 올 날이 있을 것이다。미군을 이 땅에서 내쫓고 평화적 조국 통일이 이루워지는 그 날에는。

갈팡 질팡

송웅남 그림

리승만은 계속 《국회》에 대한 자기의 광소 독재적 지위를 강화하기에 광분하고 있으나 《국회》 내부의 《자유당》과 야당파 의원들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당》 내에서의 알력도 심화되여 오늘 리 승만은 날이 갈 수록 고립 상태에 빠지고 있다

그것도 『건설』은 『건설』이것만

박 창수

전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줄기차게 진척되고 있는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장엄한 로력 성과는 파괴와 빈궁의 절곡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남반부 인민들 속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누구보다도 당황 망조한 것은 늙은 매국노 리 승만 이다。

그래 자기 딴에는 몹씨 골머리를 짜내여 멋지게 생각해 냈다는 것이 작년부터 벌려 놓은『형무소 복구 건설 5개년 계획』이다。

비록 이름일망정『복구 건설』이라는 외람된 명목을 내걸어 추악한 자기『체면』도 세워 볼 겸, 그보다도 전후 놈들이 더욱 발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폭압적인 인민 탄압의 결과로 대단히 부족을 느끼게 된 감옥도 증축할 겸…… 일석 이조 격의 이『현명』하고도『실제적』인 계획에 의하여 오늘 파괴 일로의 남조선에서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은 형무소 뿐이다。

놈들은 이『전대 미문』의『복구 건설 사업』에 얼마나『힘』과『정력』을 기울였던지 벌써『5개년 계획』의『기본 건설 사업』은 기한 전에 완수 될 형편이라고……

덕분에 지금 남조선 도시 치고 형무소가 없는 도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지경이니 형무소마다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은 당치도 않은 죄명으로 놈들에게 붙들려 나온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이다。

이에 대하여 얼마 전에 리 승만 괴뢰 정부『법무부 장관』리 모라는 자는 다분히『자랑』섞인 어조로 기자들에게 왈。

『……에 우리 대한 민국에서는 리 승만 대통령 각하님의 천재적안 착안에 립각하여 "형무소 복구 5개년 계획" 추진에 일심 합력해 온 결과 자랑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소。에 여태까지는 물질적 건설면에만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우 개선" (그는 특히 여기서 힘을 주며 마치 그 어떤 "선심"이나 쓰는 "자선가" 처럼 "너그러운" 미소를 지여 보이며고 몹씨 애를 썼다) 에도 약간의 고려를 돌릴 작정이요 에헴!』

저렇게 될 줄이야!

원광수 그림

전후 1년—헤헤… 제까짓 것들이 복구해?

전후 2년—음?! 그러나 안돼!

전후 3년—에크!! 저렇게 될 줄이야!!

"나이롱국에 도레미탕"

신 흥순

갑 여러분! 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고 리승만 괴뢰군의 고통스러운 생지옥을 벗어나 공화국의 따뜻한 품속으로 돌아 왔습니다。조국도 하나요 말과 풍속이 다 같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어찌 남북으로 갈라져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을 이 사람아 갑자기 연설은 웬 연설인가?

갑 자네 여태 모르나? 이번에 또 의거 입북했네

을 오『국군』이 또 넘어 왔단 말이지?

갑 그렇지 어제는 일곱명 오늘은 열두명

을 오 그럼 자네 지금 하던 연설이 바로 그 동무들이 한 얘기로군 그래

갑 인민 군대 총알일세!

을 인민군대 총알이라니?

갑 딱 들어 맞었단말야

을 옳아!

갑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요즘 이렇게 자주 련일 련속 공화국 품속으루 넘어 오니까 미군『고문관』이『국방장관』김 웅우를 불렀거든…

을 옳지!

◇

미 국방장관!

김 예예!

미 국군부대 어째 모두 도망부대 됐삽내까?

김 예 사실은 저어 배들이 고프다구서…

미 딴소리 마시오! 당신들 단속 잘 못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 만연 됐삽내다!

김 예 그렇잖아두 이번 신분 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잡두리 하고 있습니다 의심 나는 놈은 깡그리 기합으루 파김치를 만들어 왔습죠

미 어떤 기합 줬삽내까?

김 예 우선 두 다리 두 팔을 동여매고 깡충깡충 뛰게 하는 토끼 기합을 비롯해서 해군 밧다 기합, 엎드려 뻗쳐 기합 그리구 한강 철교기합 평양 폭격 기합……

미 그만두시오! 아직두 기합 약하기 때문에 자꾸 도망병 생깁내다!

김 예예 물론 기합두 더 해야구 말구요 그런데 고문관 각하! 미국에서 원조를 더 주신다면 좀 덜 달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미 원조? 미국서 보내 준 무기 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우리 미국 북한의 무기 공급소 되란 말입내까?

김 고문관 각하! 우리끼리 얘기지만 백일것도 없이 국군 사단 수효만 자꾸 늘쿠다 보니 사실 맥이는게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군 사병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울려고 내 왔는가?
매 맞으러 내 왔는가?
나이롱국에 도레미탕
생이가 빡빡 갈린다!

아 그런다질 않습니까 글쎄…

미 나이롱국에 도레미탕? 그거 뭡니까?

김 글쎄 실지 가 보시구서 원조나 더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헤헤…

미 좋삽내다! 그럼 어디 조사해 봅세다!

◇

을 아니 해가 서쪽에서 뜨나?

갑 왜?

을 『국방 장관』놈이『국군』사병들을 생각이나 하는 것 처럼 허니말야

갑 아 그게 다 속심이 뻔한 노릇 아닌가! 그건『국방 장관』손 원일이가『원조』솜을 처먹듯이 이놈두 또『원조』물자를『사바사바』할 셈이지

을 음 그럼은 그렇지 그놈이 고양이 쥐 생각하듯 다, 땡길심이 있어 하는 수작이로구만!

갑 아무렴 그래 미국『고문관』이 실지 부대에 가서 급식 정형을 조사하는데…

을 응…

◇

미 당신 바른대로 말하시오! 만일 거짓말 허면 용서 없삽내다! 그거 무슨 밥입내까?

병 통밀밥입니다

미 통밀밥? 그건 무슨 국입니까?

병 나이롱국입니다

미 나이롱국? 오우! 나이롱은 옷을 해 입는 고급 옷감 아닙내까?

병 그렇죠 살결이 훤히 드려다 뵈는 천 이름이죠

미 그럼 이건 고급 스푸란 말입니까?

병 아니죠 바닥이 드려다 뵈는 멀건 소금국이 돼서 이걸 나이롱국이라구 그러죠!

미 오우! 알았삽내다! 저건 또 뭡니까?

병 그건 도레미탕이란겝니다

미 도레미탕? 그럼 그건 음악가가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병 음악가는 웬 음악가요? 콩나물이 전쟁판엘 갔다 왔는지 모두 대가리만 남았으니 이게 콩나물 대가리 도레미탕이 아니구 뭡니까?

ㄱ 오우! 나이롱국에 도레미탕!

◇

김 고문관 각하! 그래 조사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원조를 더 해 주서야겠습죠?

미 국방 장관! 나 매우 놀랬삽내다!

김 아 그럼입쇼 국군은 미군의 25분지 1 비용이면 된댔는데 이건 50분지 1두 못됩지오

미 아닙니다! 잘먹는데 놀랬단 말입내다!

김 잘 먹어요?

미 그렇삽내다! 지금 시민들이 밥을 굶고 농민들이 나물국만 먹고도 사는데 나이롱국에 도레미탕 그것 아조 훌륭한 영양솝내다!

김 네?!

미 조선사람 고기 먹고 기름 먹으면 탈 나는 체질입내다! 그러니까 당신 원조 얘기만 하지 말고 하부 병사들의 머리 속을 뒤집어 놓란 말입내다! 알았삽내까?

김 예예…

미 어서 담화 발표하시오!

김 예 에헴! 국군 사병들 듣거라! 현재 먹고 있는 급식은『아조 훌륭한 영양소』라고 미군 고문관 각하께서 과학적으로 증명헌바니 금후에 만일 나이롱국이니 도레미탕이니 허는 말을 입 밖에 내는 놈이면 무조건 농지처참 헐터이니 그리 알렸다! 모두들 들었냐?

◇

을 허허 별수작 다 하네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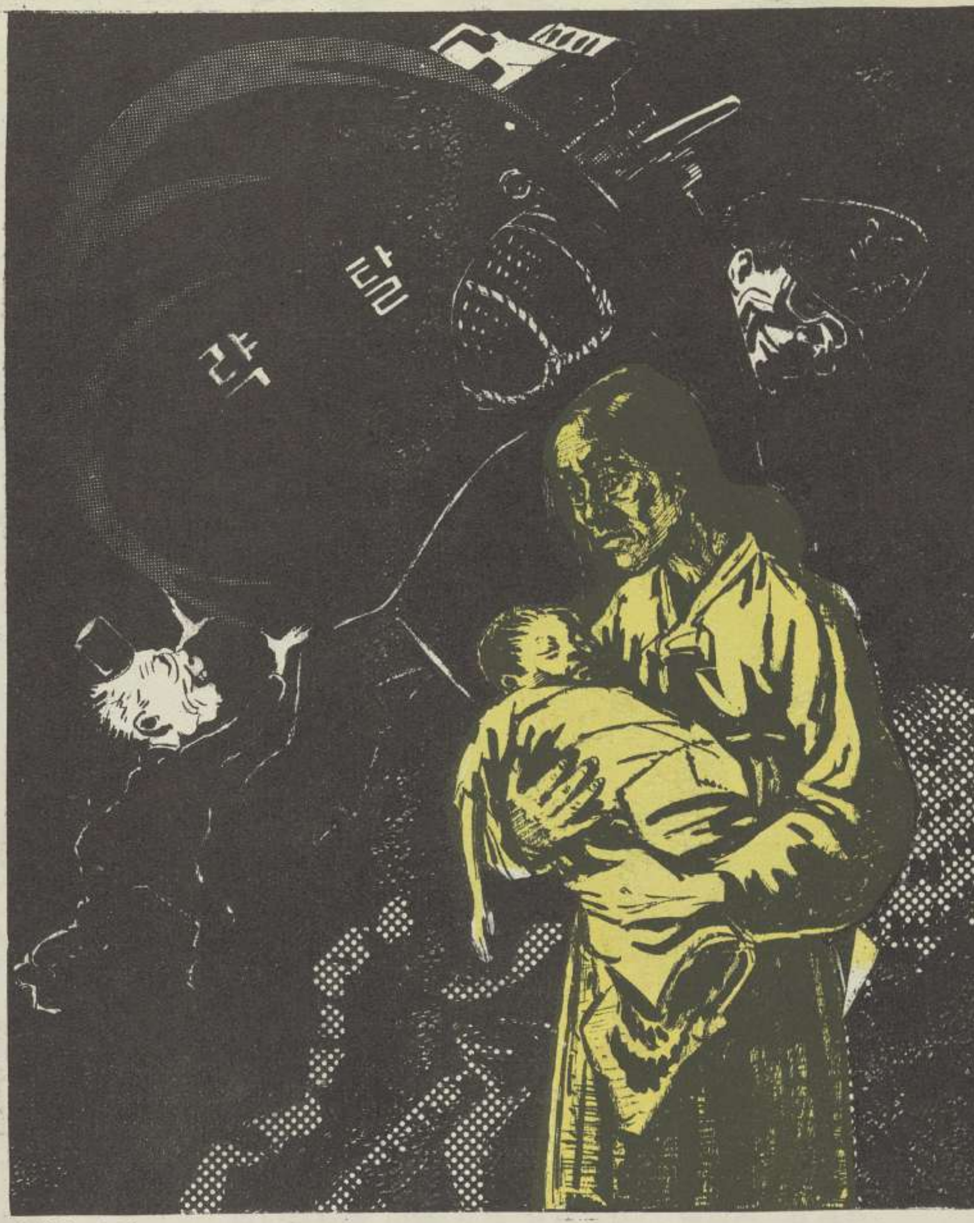
갑 그래서 요즘 기합이 새로 하나 더 늘었는데…

을 옳지…

갑 그게 바로 나이롱국 기합, 도레미탕 기합이란 거야!

을 옳아!

누가 이 사실을 통분하지 않겠는가!



안창수 그림

최근 "동양 통신"은 남조선에는 40만 이상의 근로 녀성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바 오늘 공화국 남반부 녀성들은 초보적인 권리마저 박탈 당하고 있으며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무제한한 착취와 략탈 밑에 실업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공동의 념원으로 굳게 맺어진 조-독 량국 인민의 불멸의 친선

쏘련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의 친선과 협조의 가일층의 공고화!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조-중 두나라 인민간의 불멸의 친선!

로동자—먼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 계—조선의 사회주의 건설을 도우려 온다는걸 생각하면 기쁨니다

1차5개년계획에 예견된 인민생활향상 전망

백인균 그림

통조림—축음기 동무! 나는 이번에 인민들의 식사를 즐겁게 해 준다오
축음기—나는 내 아름다운 노래로 인민들을 위안해 주겠어요
자동차—야— 이젠 우리 인민들의 소비품도 굉장이 늘었구나!
일 동—다 같이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힘껏 복무합시다

뜨락또르—내 칭찬이 너무 큰데요 좌우간 우리 나라에 이 편지가 가면 기뻐들 할 것입니다

외국기사—당신들의 건설 투쟁에 나도 힘껏 기술적 방조를 드리겠습니다

선생—저 웅대한 공장들은 우리 나라 로동자 아저씨들과 형제 나라 기술자 아저씨들의 협력에 의하여 건설된 거예요

손 님—아이 어쩌면 내 맘에 꼭 들까! 참 좋은 천이야요
로동자—형제 나라에서 보내 준 훌륭한 기계 덕분이지요
기 대—아닙니다 저 동무들의 창발성 있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리영춘 그림

그레잉—고국의 여러분! 당신들의 부탁을 받고 조선에 온 나는 저렇게 훌륭한 건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루마니야 인민은 우리와 함께 있다

조선-파란 량국 인민간의 영원하고 공고한 친선과 협조!

조선-체코슬로바키야 호상 지지와 원조로써 맺어진 불패의 친선!

조선과 웽그리아 인민들간의 친선관계의 가일층의 발전!

깊은 동정의 뜻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남조선 당국은 인민들의 더욱 더 큰 격분을 야기시키고 있다

장진광 그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적십자회는 지난 7월 12일 대 홍수로 말미암아 재해를 입은 수 많은 남반부 동포들에게 소요되는 곡류 50톤과 의류 취사도구 방역 의약품 등 구호 물품을 판문점에서 남조선 당국에게 전달코자 전문을 보냈다

자연 재해가 닥쳐 오자

업혀 다니고

끌리여 놀아나고

리 운봉

돈의 힘

『야—이게 몇 해만이야?!』

『어— 종호! 어떻게 우리 중대로 오게 됐어?!』

『국군』 5사 35련대 3대대 2중대 『2등중사』 안 재영은 고향 친구를 만나 기뻐 안감질로 돌아갔다.

『야—재영이! ……』

『쉬! 재영이라구 부르지 말라구』

『왜??』

『난 지금 3년 동안이나 내 이름을 못 부르고 있네』

『어째서?』

『그야 모두 개놈들 때문이지, 그래 나는 지금 뚱딴지 같은 김 갑훈이란 이름을 쓰지 않으면 안되네』

『김 갑훈? 그게 우리 마을 김 지주 아들 이름 아닌가?』

『그래, 지금 난 그 자식 대신 지옥살이를 하구 있네』

『아니, 그잔 어떻게 그렇게 됐어?』

『참 우수운 일두 다 있지, 난 53년 초에 징모 됐다가 병 때문에 불합격 됐더랬지. 그런데 김 지주의 돈을 잔뜩 처먹은 『병사계원』이 나를 홍성 국민 학교로 실고 가더니 징모돼 나온 청년들 속에서 갑훈이란 놈을 몰래 불러 내구서는 그 자리에다 나를 앉히면서 김 갑훈이라고 부를 때 대답하라구 위협하지 않겠어, 그래 이렇게 지옥살이를 하게 됐네』

『그럼 왜 말해서 이름이래두 찾지』

『내가 노력인들 얼마나 한 줄 알아. 세번이나 말했다가 되려 「기합」만 당했어』

『하긴 너처럼 된 것이 한 두 사람이 아니니까 들어 줄 리 없지, 이놈의 세상이 빨리 망해야 해!』

장교들의 돈 벌이

『국군』 27사 77련대 1대대 4중대장은 1소대 『일등병』 차 형석을 자기 방에 불러다 놓고 말했다.

『이번 대대장께서 특별히 형석이를 한달 동안 휴가를 보내기로 했어』

(휴가?)

형석은 집에 가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 볼 것을 생각하니 막 날뜻이 기뻤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대장은 싸물싸물 하며 말했다— 대대장께서 한 7만환 가량 필요한 모양인데…… 알만하지?』

『7만환이요??』

『집에 가서 대대장의 분부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해 줄까, 집에서 안되면 그거 다 하는 방법이 있지 않아』

그리하여 형석은 할 수 없어 7만환을 가져 올 것을 약속하고 휴가를 가게 되였다.

대대장은 눈이 깜해서 형석이가 돌아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형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이 난 대대장은 중대장을 불렀다.

『그래 어떻게 됐어?!』

『예, 그놈의 집에서 그전엔 잘 살았기 때문에……』

『뭘 떠벌여?! 한마디로 말해!』

『예, 돈을 가져 올 수 없으니까 어디론가 도망쳤다구 통지가 왔습니다』

중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내밀었다.

『이 멍텅구리 같은 놈! 고른다는게 그따윌 골랐어?!…… 당장 딴 놈을 골라보내!』

삼십 륙계

『국군』 61사 65련대 2대대 1중대 『하사』 리 찬영은 가슴이 아파 누워 있다가 『특무 장교』한테 불려 갔다.

『어째 누워드랬어?』

『가슴이 아파서……』

『거짓말 말어! 네놈이 요즘 북한에서 인민 군대를 축소한다 하니까 제대 될려구 꾀'병을 하는걸 내가 모를 줄 알아?!』

『… ?!』

찬영은 금시 초문이였다.

『이자식이! 막 모르는 척 한다? 8만 명을 축소한다구 네놈이 선전 하는걸 들은 사람까지 있어!』

『특무 장교』는 제딴엔 헛걸이를 친다는 것이 되려 찬영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였다.

(8만 명을 축소한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데 리 승만은 왜 자꾸 『국군』을 징모만 하는가)

찬영은 리 승만 도배에 대한 증오와 함께 『국군』 소굴을 벗어날 결심이 더욱 치받쳤다. 그는 리유 없이 한시간 동안 『비행기 고문』을 당했으나 그래도 기운이 났다.

그로부터 사흘 뒤의 일이다. 1소대장이 허겁지겁 중대장실로 들어 왔다.

『중대장님! 어제 밤 우리 소대 저 리 찬영이란 놈하구 장 형만이란 놈이 탈영했습니다!』

『뭐 탈영?? 에잇! 당장 전 소대를 동원시켜 검색할 것!』

한데 그날 저녁 소대장은 헐레벌떡이며 중대장실로 달려 들어 왔다.

『중대장님! 검색 나갔던 놈들 가운데서 또 세 놈이 도망쳤습니다!』

『무엇이??』

중대장은 책상을 탕 치며 일어 섰다가 맥없이 펄썩 물러 앉았다.

이렇게 뺏아가고 저렇게 뺏아가고

백인균 그림

—여기 덕성 마을이 어디 있니?
—저기 있었는 데 미국놈들이 저렇게 비행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개놈들 우리 대대 조상이 묻힌 곳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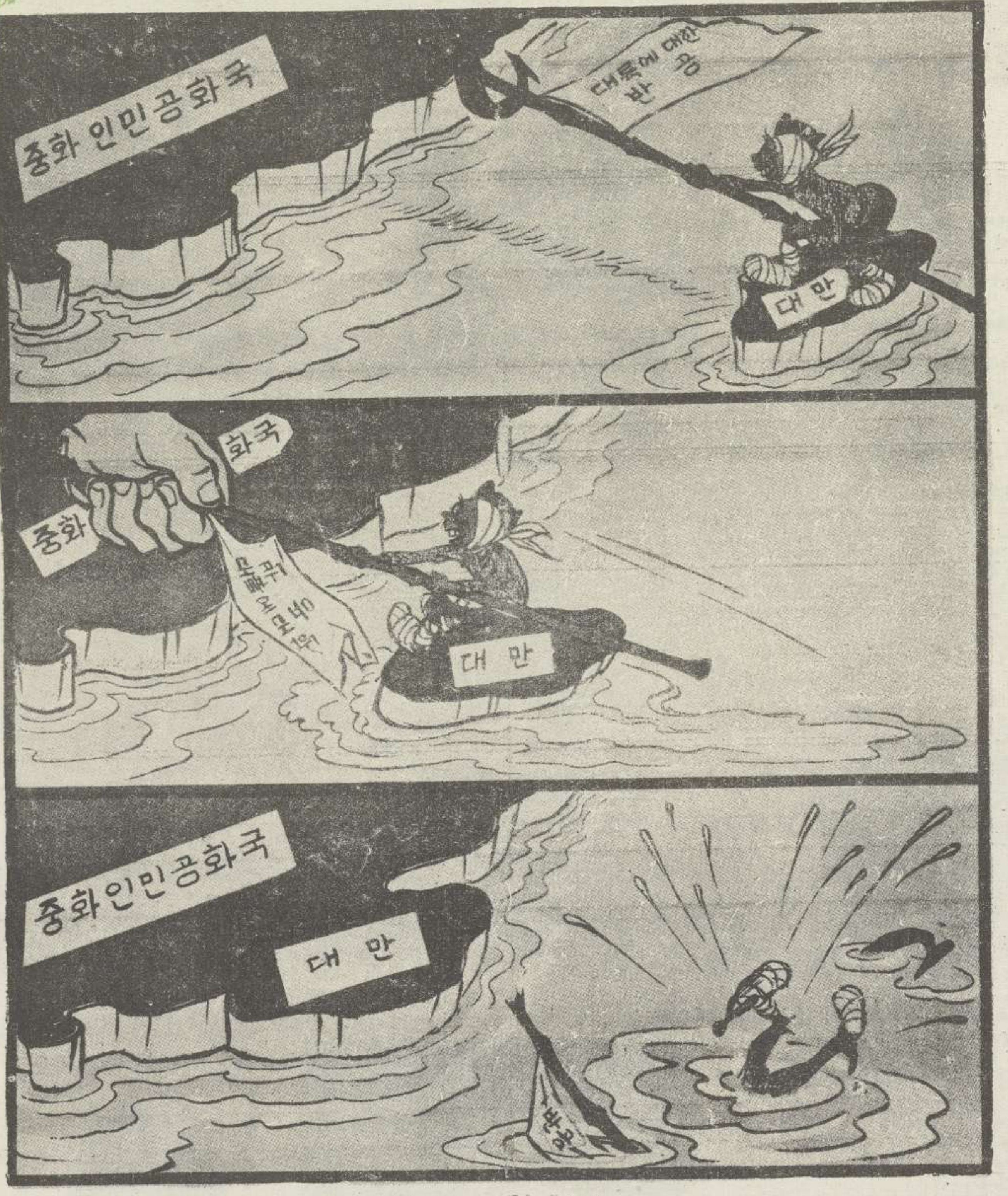
—사람 살려 주오…
—잔말 말고 밀렸던 수세나 빨리 내!

—요놈을 몽땅 먹을려면?

—그렇지! 비료 가격 인상한다

漫画- 만화
중국 공산당 창건 35주년을
경축하여 그린 정치 만화

중국 풍자 만화 잡지 "만화" 1956. 68호에서 전재
그림 쏘련 만화가 세미노봐



환상과 그의 결과

미제국주의자는 항상 약소 국가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허울 좋은 «원조»를 들고 나온다 그 누구든지 이 «원조»를 받으면 그는 그의 주권을 상실 하게 된다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딸라 «원조»라는 주머니 속에는 실 제에 있어서 미국 자본가들이 팔지 못하고 있는 썩은 잉여 물품들이 들어 있다

이것이 미국식『원조』이다

중국만화 잡지 "연환화보" 1956. 11호에서 전재
회 기환·주 조 그림

『소중한 밑천』

박승히 그림

—인제는 이것들 마저 썩어 가는구나

오늘 제국주의자들에게 남은 밑천이란 오직 보잘 것 없는 인간 쓰레기들 뿐이다

확인된 사건

김 동희

서울시 명륜동에 사는 홍 순보의 집에서는 일곱살 된 망내딸이 저녁때 놀러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안해서 모두들 밤새 애를 태웠다. 홍 순보는 이튿날 첫새벽에 어린애의 이름, 년령, 용모, 의복 등을 상세히 기입한 "어린애 찾는 광고문"을 여나문장이나 써가지고서 집을 나섰다. 그는 명륜동을 중심으로 돈암동과 종로 어간의 큰 길을 따라가면서 담벽과 전주에다 광고문을 붙이느라고 돌아쳤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장 광고문을 창경원 담벽에다 붙이고 돌아서 오는 것을 멀리에서 순찰 중의 미군 엠·피가 보았던 것이다. 쏜살 같이 쫓아 온 찦차가 그의 앞을 탁 막아 섰었다. 차에서 내린 엠·피 들이 다짜고짜로 권총을 들여대여 그를 위협해서는 찦차에 싣고서 부근의 경찰 파출소까지 가더니『틀림 없는 불온 삐라를 붙인 범인이니 철저히 취급하라』고 순경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인도하였다.

『네 놈이 삐라를 붙였다고…… 흥—』
엠·피 한테서 단단히 다짐 당하면서 그를 인도 받은 당직 순경은 콩크리트 바닥에 꿇어 앉은 그의 무릎을 툭 차면서 을러대였다.

『딸을 찾기 위해서 광고문을 붙인 것이 무슨 죕니까? 엠·피가 잘 못 보고 그러는 거지요』

『뭐라고 엠·피가 잘 못 본거라구…… 이놈아 귀신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인다. 딸 찾는 광고문을 붙이는 척 하면서 북조선 공산당이 내놓은 선언 삐라를 붙인게 틀림 없단말야! 엉뚱한 놈 같으니……』

순경은 그가 말도 못하게 주먹질로 우격다짐을 하면서 호통 쳤다. 그러나 그로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아니올시다 일곱살 난 망내딸을 어제 저녁에 잃었기에 그 애를 찾자고 광고문을 붙였는뎁쇼…… 의심되면 가보십시요』

『전방진 놈 누굴 보고 어딜 가보라구…… 이놈아 네 놈의 딸이 잃었거나 죽었거나 그건 문제가 아니야! 평화 통일에 대한 공산당의 삐라 활동한 놈들은 모주리 처단하라는 상부의 명령이니까……』

순경은 제멋대로 생억지를 쓰면서 계속 구타를 했다. 이때 순찰 나갔던 다른 순경이 들어 오다가 그를 보고는『이전 또 뭐야……』하면서 경찰봉으로 그의 어깨를 쿡 치더니 당직 순경 앞으로 다가 가면서 량미간을 찌푸리고는 말했다.

『리 순경! 저걸 어떻게 하지……』

『무얼?』

『어제 저녁 때 미군차에 깔려 죽은 어린애말야…… 냄새가 나기 전에 처치해야 할 것 안야…… 귀치 안아서……』

『응—그것…… 골치 아픈 일이야…… 제길할! 사람은 미군이 죽여 놓고 그 뒤 치닥거리는 우리가 해야하니 그러니 어느놈을 잡아 시킨담……』

순경들의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게 자기 망내딸 이야기나 아닌가 하고 느끼게 된 홍 순보는 벌떡 일어서면서 물었다.

『아니 그게 제 딸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애를 좀 보게 해 주십시요』

그러자 당직 순경은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것 처럼 능청스럽게 말했다.

『오—참 망내딸을 찾기 위해서 광고문을 붙였다고 그랬지…… 아마 틀림 없겠군, 어제 저녁 때 미군차에 치여 죽은 계집앤데……』

당직 순경은 마침 잘 됐다는 듯이 옆에 순경을 힐끔 쳐다 보고 나선 그를 데리고 파출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길 한 옆 거적을 덮어 놓은데로 갔다.

그건 분명 그의 딸이였다. 거적을 들치고 이윽히니 보던 그가 부르르 치떨면서 목이 타게 웨쳤다.

『명순아! 어느 놈이 너를 이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냐……』

『뭘 그래 미군이 한 것인데 할 수 없는 일이지…… 어서 처리나 하오. 감옥에 들어갈번 했던 일이 좌우간 이걸로써 무죄가 확인됐으니 다행이지……』

순경은 이렇게 씹얼거리면서 더는 제알바 아니라는 듯이 파출소 쪽으로 성큼 성큼 걸어갔다.

제초기는 창고에서

장 필순

″이제 김만 제때에 매 준다면 금년도의 벼 수확은 대단하지〃

군적으로 모내기가 완료된 통계 보고를 받은 룡천군 농산부 일'군들의 생각은 이러하였다.

하루는 통계원이 부장을 찾아 왔다.

——부장 동무! 축력 제초기가 사용 안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안되다니?!

——양석벌 같은데서는 제초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이앙이 되여 있다는 데 다른 리들에서도 이를 쓰지 못하는 원인이 주로는 여기에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한자 두치 간격으로 한다는 것을 몰라서?

——봄에 있은 강습 때도 거기에 대해선 강조를 덜 한데다가 지도 내려간 동무들도 다만 모를 심는데만 주의를 돌린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아니라 도내 전반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발 김 맬 때는 농민들의 낡은 고집 때문에 제초기를 사용 안해서 제초가 늦어지더니 이번엔 제초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여 제초가 늦어진다고?

이런 후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제초기를 사용할 수 있게 이앙할 데 대한 내용이 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침투되지 않은 탓으로 룡천군에 배당된 제초기는 거의가 창고에서 썩고 있다.

하나 마나

″어느 리에서도 늦벌레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리에로 파견되였던 지도원들은 이구 동성으로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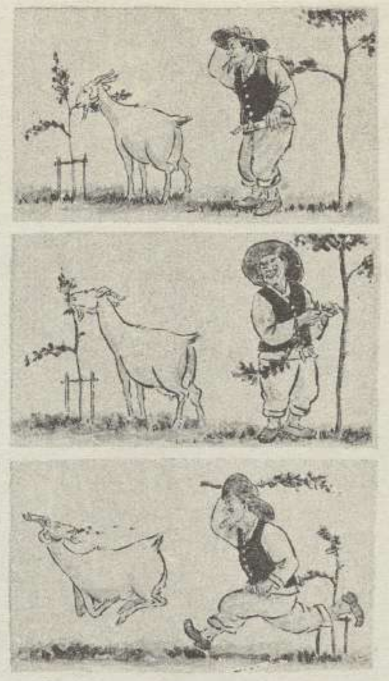
늦벌레로 인해서 지난 해 농산물에 큰 피해를 당한 쓰라린 경험을 가진지라 의주군 농산 부장은 이 보고에 심히 만족하여 즉시 상부에도 보고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 의주군 상단리에서는 천 여 명의 로력이 벌레 잡이에 동원되였으며 하단리의 600정보를 넘는 옥수수 밭에도 늦벌레가 발생하여 야단 법석이였다.

늦벌레 발생이란 의외의 보고를 들은 부장은 급히 지도원들을 불러 놓고 책임을 따졌으나 그들은 모두 ″리에서들 하는 말이 그런데요〃하고 우물우물 서로 얼굴만 쳐다 보았다.

그러니 들은 말만 가지고 자기 사업을 잘한 듯이 내세우며는 지도 일'군들의 이런 사업도 결국은 하나 마나……

나무를 몹시 애호하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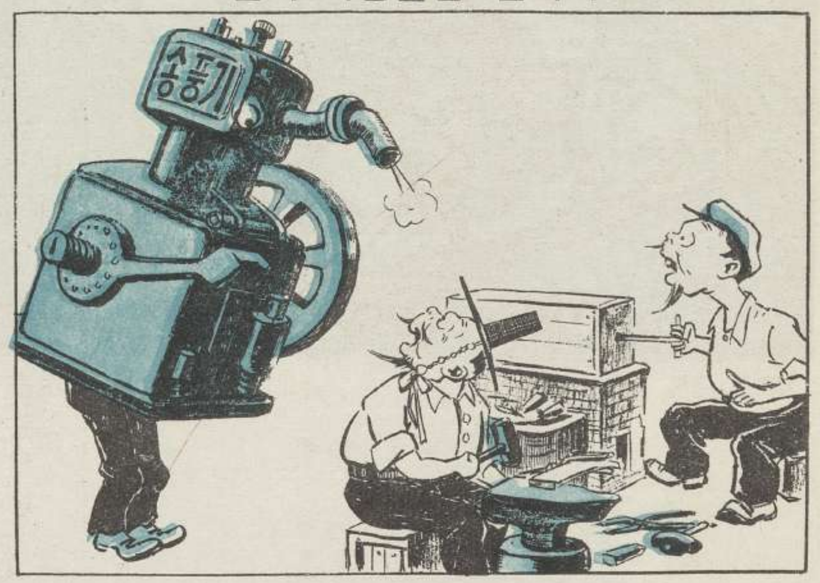
미술 인쇄 공장 차 광주 그림

우리는 계획을 달성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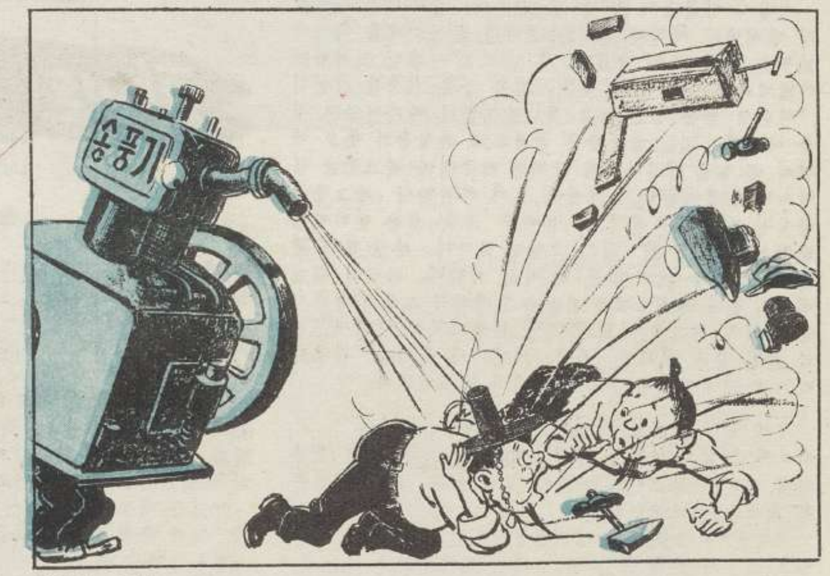
백인균 그림

일부 성(국)들과 기업소에서는 계획을 품종 별로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금액상 달성에만 매달려 생산하기 쉽고 금액상 높은 품종만 초과 생산함으로써 관계 기업소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설비 리용률을 높이자



—그래 당신들은 나를 쓰지 않을래요?
—손에 익은 이 기계도 힘은 세다오



안창수 그림

—내 힘을 한번 보여 주어야 하겠군
—그래 내가 뭐랍디까
—누가 고집을 부렸기에……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기계의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사상적으로 동원될 대신 귀중한 새 기계를 두고도 낡은 수공업적 방법을 고집함으로써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다

최고기록

김 문규

지배인은 자기 방에 보리가다 책임자들,공장장들,생산과 일'군들을 모두 불러 놓고 일장의 훈시를 하였다. 훈시의 내용은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기간 단축하여 기어코 완수함으로써 락후한 기업소라는 불명예를 씻어낼 것과 그를 위해서는 우선 생산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동시에 제품의 질 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은즉 불합격품을 내지 않는 것은 공장에서 실시하는 제품 검사 보다도 오히려 각자의 자각적 열성에 맡겨야 하겠다는 것 등등이였다.

이때로부터 이 공장에서 제품에 대한 자체 검사 제도는 실제적으로 없어졌다. 『우리 로동자들이 자각적으로 일하니 불합격품이 나올 리 없다는 것』이 표면상 리유이며 『벽돌이나 기와의 질이 나쁘다는 말이 다소간 있다손 치드라도 집을 짓고 사람이 든 다음에야 이미 계획 완수가 끝난 이후라 무슨 소용 있겠나 평을 잡는게 때라고 생산을 내는게 우선 수지』여기 지도 일'군들의 속심에 품고 있는 리유는 바로 이것이였다.

소성로에서 구워 내는 것은 모두 합격품이 되였다. 백장에 스무장씩은 끼워 나오는 채 구워지지 않은 놈, 지나치게 구워진 놈, 찌그러진 놈, 비뚤어진 놈, 치수가 자라지 않는 놈, 깨진 놈, 터진 놈, 할 것 없이 모두다 합격품으로 자동차에 실리고 기차에 실려서 건설장에로 떠나갔다.

제품 검사원은 소성로에서 구워 내는 벽돌장을 세는게 일감이였다.

어제는 15만 장, 오늘은 16만 장으로 신천 면와 공장의 벽돌 생산은 급속도로 제고되였으며 오작품도 전혀 없고 모두가 합격품들이다. 검사 대장에 도장이 팡팡 찍히였다. 지배인은 지배인대로『불 합격품 없음』하고 상급에 대한 보고서에 큼직한 자기 도장을 찍었다.

어느날 지배인은 생산 과장을 불렀다.

『이보 벽돌 공장에서 불합격품이 전연 없다는게 혹은 리치에 맞지 않는 일은 아니요?』

마음이 양순한 생산 과장은 지배인의 얼굴을 쳐다 보지도 못하고 땅 바닥만 내려 보면서 어물어물 대답했다.

『글세요… 듣건대 아직 그런 일은 없나 봅니다. 대개 얼마간의 불합격품은 나는 모양입니다』

지배인은 깜짝 놀랐다.

『동무… 큰 일이요. 다문 얼마라도 불합격품을 만들어 내오』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불합격품 비률이 벽돌에서 2%, 로기와에서 6%로 되였다. 그리고도 이 공장 지도 일'군들은 자기들의 생산 성과가 『최고 기록』을 돌파하고 있다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원광수 그림

-부기원 동무는 관람권이 없소?
-나는 이 직장에 와서 관람권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이핑계 저핑계

리영춘 그림

-강 동무네 작업구의 제초 작업은 어떻게 됐어요?
-동무도 보다싶이 모가 뿌리나 잡혀야 제초기를 댈 것 아니요

-강 동무! 어째서 지금까지 제초를 하지 않고 있어요?
-동무도 보다싶이 저렇게 벼가 자랐는데 제초기를 댈 것 있소

일부 농민들 가운데는 이런 저런 구실로써 제때 김매기를 안하는 현상이 있다

『충실』한 위생반장

복남—아저씨 오늘도 도장 찍으러 오셨어요?
위생반장—응 매일 찍어두지 않으면 상부 검열이 씨끄럽단 말야

(수매 량정성 손 동진 그림)

편집 위원 장 진 광(책임 주필) 한 석 기 김 선 낙 박 기 성 송 용 남
발행소 활살(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 1956. 7. 10. ㄱ—70520
인쇄소 미술 인쇄 공장 발행 1956. 7. 15. (값 50 원)

문은 열리고야 말 것이다

장진광 그림